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론*

도원영 · 김혜령 · 최경봉 · 최호철

(고려대 교수 · 성신여대 강사 · 원광대 교수 · 고려대 교수)

<Abstract>

Doh Wonyoung, Kim Hyeryoung, Choi Kyeong-bong, Choe Ho Chol. 2018. Introduction to Metaphor Database Construction. *Korean semantics*, 61. This paper describes the necessity of metaphor database construction and discusses the nature of metaphor database and how to construct it. The metaphorical database is a large-scale database of metaphoric expressions. The metaphor database collects a wide variety of language expressions containing metaphorical thinking. The collected metaphor expresses the source area and the target area first, sets a keyword that covers the subject area and the source area covering the target area, and presents the examples and the sources of the metaphor expression in actual use. The metaphor database thus constructed is not only a base for understanding the expression of Korean metaphor, but also a production data that can express metaphors. At the educational level, it can be used both as comprehension and metaphor for Korean metaphor.

핵심어: 은유 데이터베이스(Metaphor Database), 은유(Metaphor), 은유 표현(Metaphor expression), 근원 영역(source domain), 목표 영역(target domain), 분류어(classifier), 주제어(keyword), 코퍼스(corpus)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7672).

1. 서론

은유는¹⁾ 두 대상의 유사성을 연결 지어 의미의 전이, 변화, 확장을 꾀하는 표현 방식이자, 창의적 인지 작용에 따른 고차원의 사유 방식이다. 은유는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표현이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결코 특이하다거나 예외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기도 하다. 시학에서는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은유 표현에는 언어 사용자들이 사유하는 방식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녹아들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 은유 표현은 한국인의 표현 방식 속에 내재한 고유의 감성 구조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은유 표현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 작품에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개별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기존의 은유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적 은유, 특히 개념적 은유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로 이론 중심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연구들은 개념적 은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보여 주지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은유 표현의 사용 양상을 보여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론 중심의 연구 외에도 특정한 개념 영역이나 개별 언어 표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러한 연구는 개별 표현이나 개별 개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지만, 이것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
- 1) 은유는 비유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원관념(tenor),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보조관념(vehicle), 근원 영역(source domain)을 통해 나타내는 방식이다. 은유는 수사학과 철학에서 각각 논의되는데 철학은 은유를 사유 방식으로, 수사학은 표현 방식으로 다룬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은유, 즉 사유 방식의 결과로 수사학에서 말하는 은유, 즉 언어 표현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사학에서는 수사법을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으로 분류하는데, 은유는 이 가운데 비유법에 해당한다. 비유법에는 은유 외에도 의한 환유, 제유, 반어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비유법은 유추에 의한 사유 방식으로, 은유는 특히 유사성의 유추에 의한 사유 방식으로 논의된다.
 - 2)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종도(2004), 박영순(2000), 임지룡(1995, 1996, 2006), 최경봉(1997, 2000, 2002), Lakoff & Johnson(1980) 등이 있다.
 - 3)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진해(2014), 김해연(2010), 심지연(2015, 2016, 2017), 임혜원(2006), 전해영(2010, 2014) 등이 있다.

중의 하나로, 다양한 은유 표현을 정제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에 필요한 은유 표현을 효율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다양한 코퍼스가 구축되었으나 언어 표현을 생산한 사유 방식을 고려하여 언어 표현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코퍼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어의 은유 표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또 한국어의 특성과 한국인들의 사유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 한국어에서 드러나는 은유 표현의 모습을 폭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은유 표현을 모으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어사전에 다양한 은유 표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은유적 사고의 결과물로서 의미가 정착된 경우 이를 뜻풀이에 제시하고 있다.⁴⁾ 또한 관용어나 속담 등의 항목에서 은유 표현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에 소설어 사전이나 시어 사전 등의 문학어 사전, 관용구 사전이나 속담 사전 등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일부 역시 은유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이나 문학어 사전의 경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은유 표현을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전들은 보다 많은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의미가 갖는 은유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의 은유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문학어 사전이 편찬되었으나, 이는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작가가 사용한 표현들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실상 문학어 사전이라기보다는 작

4) 꽃 ㉠ ④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스 김은 우리 회사의 꽃이다. ⑤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꽃 같은 청춘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놀자. ⑥중요하고 핵심적인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회부는 신문사의 꽃이다. ⑦흥여 등을 앓을 때, 살갓에 좁쌀처럼 발긋발긋 돋는 것. 『열병에 걸린 아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꽃이 돌았다.

위에 제시한 내용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 ‘꽃’의 뜻풀이 가운데 일부이다. 이 사전에서는 ‘꽃’의 뜻풀이를 모두 7개로 두었는데, 이 가운데 4~7은 ‘꽃’의 은유적 사용이 굳어져 어휘의 의미로 정착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국어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은유는 어휘의 다의가 형성되는 주요한 방식에 속하며, 따라서 어휘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 국어사전에서 은유의 방식에 따른 다의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 개인의 표현 사전에 가깝다고 하겠다.

한국어의 은유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어에 내재한 은유 표현을 한데 모아 분류·배열하게 되면 한국어만의 고유한 메시지를 구현하는 은유 표현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은 한국어 은유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은유를 표현할 수 있는 생산용 자료가 된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한국어 은유에 대한 이해용 자료로도, 표현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은유 표현을 집적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말뭉치나 사전 등을 활용하여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절차와 세부 내용에 대해 살필 것이다.

2. 은유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의 범위

이 장에서는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은유 표현들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자료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밝히고,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2.1. 은유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범위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자료는 은유 표현들로, 은유적 사고방식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언어 표현들에 해당한다. 은유 표현은 일반적으로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은유 표현만을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한다면 이러한 표현만이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만한 표현들이 있다.

먼저 은유와 유사한 표현 방식인 직유와 상징이 있다. 직유에는 은유와 달리 표현상의 매개어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은유가 좀더 직관적이며 직접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은유적 방식을 거쳐 나타난 것으로 근원

영역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반면, 목표 영역은 감추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특히 시에서 사용된 시어들은 상징의 방식을 따른 것이 많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은유 표현만을 포함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엄격하게 본다면 직유나 상징 표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유나 상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은유나 직유, 상징은 모두 비유 표현의 하나로서 그 사유 방식이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⁵⁾ 먼저 상징은 특정 사물과 개념을 관련 짓는다는 점에서, 은유적인 과정을 거쳐 표현되고 이해된다. 한 문장이나 시의 한 연 안에서 목표 영역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근원 영역인 시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 영역을 텍스트의 맥락 혹은 제목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사유 방식이 직유나 은유, 상징으로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 (1) 가.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다.
- 나.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과 같다.
- 다. 올림픽의 꽃

(1가~다)에서 쓰인 ‘꽃’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올림픽 종목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며,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종목으로서의 마라톤 경주를 뜻하는데, (1가)는 은유, (1나)는 직유, (1다)는 그것이 쓰인 환경에 의해 상징적으로 쓰인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수집 범위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은유 표현만으로 한정한다면, (1가)는 포함되지만 (1나, 다)는 제외되어야 한다. (1가~다)의 ‘꽃’이 모두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나, 다)가 은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표현 방식에서 ‘처럼’, ‘같이’와 같은 직유 표현의 유무에 의한 것이다. (1가)와 (1나)에서 문장의 의미 차이는 있으나, 육상 경기 가운데에서 마라톤 경기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5) 물론 상징의 경우에는 언제나 은유와 유사한 방식, 곧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추적 사고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징의 예는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적 사유 방식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표현이 모두 서로 다른 두 범주를 개념적으로 연관시키는 은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직유, 은유, 상징 표현은 모두 비유적인 사유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마지막 산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 방식을 취했느냐에 따라 표현 형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⁶⁾

은유와 직유, 상징은 동일한 사유 방식을 더 직접적으로, 혹은 덜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은유 표현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포함될 만하다. 결국 본고에서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로 포함하고자 하는 은유 표현은 서로 다른 두 범주를 개념적으로 연관시키는 사유 방식을 반영한 언어 표현을 이른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관습적인 은유 표현을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로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관습적 은유는 본래 은유적 사고방식에 의해 생성되었으나, 그 표현과 의미가 언중들에게 익숙해져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른바 사은유라고도 불리는 표현으로, 무뚝뚝한 사람을 ‘곰’으로 표현하거나, 집단 내의 여성을 ‘꽃’으로 표현하는 예에 해당한다. 관습적 은유는 대체로 어휘의 의미나 관용구, 속담의 의미로서 이미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이며, 사전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동감 넘치는 은유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관습적 은유 표현들은 개별 은유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은유 역시 은유적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이 은유로서는 ‘죽어 있는’ 것으로 취급받을 만큼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은유 표현은 그 표현이 사은유로 인식될 만큼 친숙하지만, 근원 영역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은유 표현을 새롭게 생산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에서 예로 든 ‘꽃’과 같은 경우, 하위 부류로서 장미, 백합, 국화 등과 같은 다양한 꽃들로 교체 가능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은유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하나의 친숙하고 굳어진 은유 표현이 또 다른

6) 이는 곧 개념상의 은유와 언어 표현으로서의 은유를 구분해야 함을 나타낸다. 개념상의 은유는 두 대상, 혹은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사유 방식을 뜻하고, 언어 표현으로서의 은유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의 구분으로 드러난 것을 뜻한다.

은유 표현의 다양한 양상을 살필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적 은유를 살피는 것은 한국인들의 사유방식을 살펴보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습적 은유의 경우에는 언중들이 이미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사이의 관계를 친숙하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게 되므로, 목표 영역이 생략되는 일이 흔하다.⁷⁾ 따라서 언어 표현상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2) 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설마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
 나. 이토록 화끈하게 쌓아온 ‘공든 탑’에도 균열이 우려되는 부분은 존재한다.
 다.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하다니, 공든 탑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2)는 속담인 ‘공든 탑이 무너지랴’가 사용된 예이다. (2가)의 경우 속담 표현인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가 근원 영역에 해당하고, 그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한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가 목표 영역에 해당한다. (2나, 다)의 경우 같은 속담에서 ‘공든 탑’만이 쓰였는데 ‘공든 탑’은 노력하여 그 동안 이룩한 결과물을 뜻하며, 이들의 목표 영역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⁸⁾ 그러나 (2)에서 사용된 속담과 관련된 표현들이 모두 은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표현은 속담인 ‘공든 탑이 무너지랴’나 ‘공든 탑’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가 이미 언중들 사이에서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 영역만을 제시하여도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다.

또한 관습적 은유의 일부가 새로운 은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2)에서 제시한 ‘공든 탑이 무너지랴’의 ‘공든 탑’과 같은 예가 그러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히 굳어진 사은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중들은 이 속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일부인 ‘공든 탑’을 별개의 은유 표현

7) 목표 영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유적 사고방식이 상징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8) (2)의 문장에서는 목표 영역이 드러나지 않으나, 문장이 사용된 전체 맥락을 살필 경우 목표 영역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2나)의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와 관련하여, 특정 팀이 연승을 쌓아온 것을, 그리고 (2다)의 경우에는 어떤 일에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던 것을 ‘공든 탑’으로 각각 표현한 것이다.

으로 받아들인다. 이 표현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관습적인 은유 표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든 탑’만을 사용했을 때에도 그의 의미가 충분히 용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든 탑’은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관습적 은유에서 출발한 새로운 은유 표현이 된다. ‘공든 탑’의 의미와 그 용법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성격을 띠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도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은 은유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유에 의한 언어 표현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은유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은유적 사고방식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인 언어 표현들을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은유 데이터베이스’란 은유적 사고방식에 의해 생산된 언어 표현을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은유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사법상 은유로 분류되는 표현뿐 아니라 직유 표현 등의 비유적 표현이 포함될 것이며, 관습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은유적 사고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언어 표현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⁹⁾

2.2. 은유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의 방법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용례 검색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성격의 코퍼스를 수집한 결과물이다.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들로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에 적합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은유가 활용된 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코퍼스에서 은유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수집해야

9) 물론 은유와 직유에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은유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고, 직유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직유는 의미의 통제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지만 은유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유 방식을 거쳐 만들어진 언어 표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였다.

한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성격의 코퍼스가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 자원이 될 것이다. 코퍼스로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나 물결21 말뭉치, 구어 코퍼스 등이 있다.

(3) 기초 자료의 유형

구분	기초 자료 유형	성 격
1	코퍼스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 포함
2	사전	국어사전, 속담 및 관용구 사전, 문학어 사전 등
3	문학 작품 코퍼스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등의 원문 텍스트
4	신어	국립국어원 발간 신어 자료집, SNS 텍스트

본고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은유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코퍼스와 현실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SNS 언어를 기초 자료로 삼아, 그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은유 표현들을 추출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구축된 코퍼스의 언어 표현 가운데 은유 표현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¹⁰⁾ Stefanowitsch & Gries(2006)에서는 코퍼스를 통해 은유나 환유 표현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하고 있다.¹¹⁾

-
- 10) 코퍼스에서 은유 표현의 후보군을 추출하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계 학습, 특히 딥러닝의 방법론을 통해 은유 표현의 후보들을 탐색한 뒤,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간 이러한 방법론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은유 표현이 정해진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 학습의 방법으로 은유 표현을 추출할 경우, 그 결과가 정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순도가 높은 추출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는 은유에 사용되는 어휘나 은유 표지 등을 파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검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은유에 사용되는 어휘, 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은유 표현 추출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계 학습에 의한 은유 표현 추출 방법은 다루지 않았다.
 - 11) Stefanowitsch & Gries(2006) 외에도 은유 표현을 코퍼스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에는 Charteris-Black(2004), Deignan(2005)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코퍼스에서 연구에 필요한 은유 자료들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Stefanowitsch & Gries(2006)의 논의 내용이 그간의 추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 보아 그 방법론을 따랐다.

(4) Stefanowitsch & Gries(2006)의 은유 및 환유 표현 추출 방법

- ① 매뉴얼 검색
- ② 근원 영역 어휘 검색
- ③ 목표 영역 어휘 검색
- ④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에서 온 어휘 요소를 포함한 문장 검색
- ⑤ ‘은유 표지’를 기반으로 한 은유 검색
- ⑥ 의미 영역에 대한 주석이 달린 코퍼스 검색, 추출
- ⑦ 개념 사상을 위한 주석이 달린 코퍼스 검색, 추출

이 가운데 ⑥, ⑦은 ①-③까지의 방법을 확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은유 표현 검색, 추출에 사용할 방법은 ①-⑤가 될 것이다.

매뉴얼 검색은 연구자가 코퍼스를 주의 깊게 모두 살펴서 은유 표현을 찾아내는 것으로, 기존의 방대한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며,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구축된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은유 표현 추출은 사실상 ②-⑤에 해당한다.

먼저 ②와 ③은 특정한 단어나 표현이 갖는 근원 영역으로서의 의미, 목표 영역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하여 은유 표현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이는 ‘꽃’이나 ‘꿀’이 근원 영역으로서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 목표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 ‘아름다움’이나 ‘문화’, ‘기술’ 등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갖는 은유적 의미는, 그 사용 빈도가 높고 언중들에게 익숙해진 경우 사전에 단어의 의미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국어사전에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은유적 의미를 단어나 관용구의 의미로 실어 두었다. 앞서 예로 제시한 ‘꽃’의 경우 여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그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 ③의 방법으로 은유 표현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사전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사전 자료에 관용구나 속담으로 등재되어 있는 표현들과, 단어의 뜻풀이 가운데 해당 의미가 비유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는 예들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본고에서 살핀 코퍼스에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망라한 국어사전이 포함된다. 특히 대사전으로서 많은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을 포함하였으며, 관용어·속담 사전 역시 코퍼스에 포함하였다.

(5) 근원·목표 영역 어휘 검색으로 추출한 은유 표현

	A	B	C	D	E	F
1973	뜻풀이	표준	신산-하다	辛酸--	형용사	(비유적으로)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럽다.
1974	뜻풀이	표준	신성07	新星	명사	어떤 분야나 단체에 새로 나타나서 주목이나 인기를 받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75	뜻풀이	표준	신출-귀몰	神出鬼沒	명사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76	뜻풀이	표준	신출귀몰-하다	神出鬼沒--	동사	(비유적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지다.
1977	뜻풀이	표준	신호-탄	信號彈	명사	어떤 일이 시작되려 함을 알리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78	뜻풀이	표준	신화04	神話	명사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79	뜻풀이	표준	실상03	實像	명사	겉모양을 덮쳐 버린 진실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0	뜻풀이	표준	실지02	失地	명사	잃어버린 자기의 세력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1	뜻풀이	표준	심금01	心琴	명사	외부의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2	뜻풀이	표준	심다01		동사	「2」(비유적으로)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다.
1983	뜻풀이	표준	심다01		동사	「3」(비유적으로) 어떤 사회에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뿌리박게 하다.
1984	뜻풀이	표준	심다01		동사	「4」(비유적으로) 앞으로의 일을 위하여 자기편 사람을 상대편 집단에 미리 넣다.
1985	뜻풀이	표준	심빙	心氷, 풀고	명사	마음속의 얼음이라는 뜻으로, 마음속의 불리치 아니하는 의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6	뜻풀이	표준	심술-보02	心術-	명사	심술이 자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7	뜻풀이	표준	심면	深淵	명사	「2」, 움직일 빠져나오기 힘든 구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88	뜻풀이	표준	심면	深淵	명사	「3」, 피어날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는 다양한 어휘의 의미들이 포함되는데, 어휘 의미의 확장 양상의 일부가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통해 언중이 은유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습적 은유 표현도 다수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의 (5)에 제시된 ‘심다’의 경우, ‘생각을 심다’와 같은 표현은 은유 표현임이 분명하지만 ‘심다’의 다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생각’과 ‘식물’ 사이의 개념적 대응의 결과로, 단순히 코퍼스의 언어 자료를 살필 때에는 분석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어휘 검색을 통해 다양한 은유 표현의 추출이 가능하다.

④의 방법은 ②, ③의 방법을 통해 은유적 의미를 갖는 어휘 탐색이 진행된 후, 해당 어휘가 포함된 문장 표현을 검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②의 방법을 통해 근원 영역으로서 은유적 의미를 갖는 ‘꽃’을 추출한 후, ‘꽃’이 포함된 표현을 코퍼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아래는 근원 영역 어휘 검색을 통해 은유 표현으로 선정된 ‘꽃’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의 용례 검색기를¹²⁾ 활용하여 언어 검색을 한 결과이다.

12) 21세기 세종계획 코퍼스를 수정 보완한 ‘SJ-RIKS 코퍼스’이다(<http://riksdb.korea.ac.kr/>).

3. 은유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분석

은유 표현을 수집한 후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은유 표현들을 집적해 놓기만 해서 데이터베이스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은유가 드러난 표현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3.1. 자료의 분석

만약 엄격한 의미에서 은유 표현, 즉 ‘A는 B이다’와 같은 은유 표현만을 수집한다면, 사용례에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은유 표현의 데이터베이스가 곧 은유 표현의 사용례를 모아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는 은유 데이터베이스에는 반드시 목표 영역과 보조 관념이 모두 드러나는 표현만이 아니라 관습적 은유나 문학적 은유와 같이, 목표 영역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은유 표현들을 그저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한 은유 표현들을 적절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이 피다’, 혹은 ‘꽃을 피우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은유 표현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표현들이 은유 표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용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 용례를 분석하여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이 확인되는 은유 표현이 맞는지 분석한다.

(10) ‘꽃이 피다/꽃을 피우다’의 예

- 가. 678년간 이어진 백제가 웅진(공주 옛지명)을 수도로 삼은 것은 문주왕부터 성왕까지 불과 5대 64년에 불과하지만, 그때 백제의 꽃이 피었다.
(미주중앙일보, 20140428)
- 나. 우주에서 꽃 피었다...‘지구 밖 개화’ 첫 성공 개가 (연합뉴스, 20160117)
다. 축구장에 찾아온 봄, 화제의 꽃이 피었다. (OSEN, 20150314)
라. 21세기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꽃을 피우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19991230) ……

위의 (10)은 ‘꽃이 피다/꽃을 피우다’에 대한 신문 코퍼스 검색 결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구분 없이 모으는 일이 중요하며, 이렇게 은유 표현이 사용된 개별 문장을 모으는 작업은 개별 은유 표현의 이해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은유 표현이 아닌 것은 분명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 (10)의 사용례 가운데 (10나)는 축자적인 의미인 ‘개화(開花)’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러한 예는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예들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을 분석한다. (10가, 다, 라)에서 제시한 다양한 예에서 ‘꽃이 피다’, ‘꽃을 피우다’는 근원 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 모두 다른 목표 영역을 나타낸다. 백제의 꽃이 핀 것은 백제의 문화가 융성하여 발전한 것을 나타내고, 화제의 꽃이 핀 것은 이야깃거리가 매우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표현은 한국어 사용자라면 문장을 통해 어렵지 않게 목표 영역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꽃이 피다’의 목표 영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목표 영역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목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각각의 표현에서 구체적인 목표 영역이 모두 다르지만, 이 각각의 목표 영역이 의미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근원 영역 중심으로 다시 보면 근원 영역인 ‘꽃이 피다/꽃을 피우다’가 다양한 목표 영역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즉 구체적인 문장에서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을 단순히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를 통해 근원 영역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목표 영역의 개념적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 은유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는 길이다.

3.2.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은유 표현을 분석해서 모아 놓은 것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적당한 은유 표현을 수집하였다면,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활용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그 결과물을 정리해야 한다.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은유 표현의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을 각각 정리하였는데, 이는 은유 표현의

핵심이자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핵심이 된다.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외에도,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은유 표현을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으로만 분류하여 제시하였을 경우, 각각의 표현이 모두 개별적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은유 표현들을 살펴보면, 일부 표현은 목표 영역, 혹은 근원 영역에서 서로 적지 않은 연관성을 보인다. 앞서 예를 들었던 은유 표현의 근원 영역인 ‘꽃이 피다’는 자연스럽게 ‘꽃이 지다’라는 표현과 연관되고, 이 두 표현은 ‘꽃’이라는 표현과도 연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의 연관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근원 영역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분류어’를 설정할 수 있다. 분류어는 근원 영역을 중심으로, 근원 영역의 개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위 개념어를 말한다.¹³⁾ 분류어는 은유 표현에 드러난 근원 영역의 핵심어로, 은유 표현을 이후에 보다 쉽게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꽃이 피다’와 ‘꽃이 지다’의 경우에는 ‘꽃’이라는 분류어를 공통적으로 갖게 될 것이며, 분류어를 대상으로 ‘꽃’을 검색한다면 이들 표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분류도 필요하다. 동일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은유 표현을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근원 영역의 분류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주제어’로 설정한다.

수집한 은유 표현은 은유 표현의 언어적 단위와 그 성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나타낸다.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앞서 여러 차례 예시로 제시하였던 ‘꽃’의 경우, ‘그녀는 우리 회사의 꽃이다’와 같은 표현에서 ‘꽃’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여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백제 문화의 꽃이 피었다’에서 ‘꽃’과는 차이가 있다. ‘백제 문화의 꽃이 피었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꽃’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어떤 은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꽃이 피다’라는 구

13) 분류어는 각 의미 분류를 대표하는 어휘로, 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고유어 또는 한자어 명사로 정할 수 있다. 분류어의 설정을 위해서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의미 부류 체계와 우리말샘의 어휘 분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의 연구에서 이어질 것이다.

가 ‘황금기를 맞다’라는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은 모두 ‘꽃’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은유 표현이지만, 전자는 단어가 단독으로 은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후자는 그 단어가 포함된 구가 은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를 단어의 은유, 후자를 구의 은유로 구분해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직유 표현을 들 수 있다. 직유는 표현 방식이 은유와 차이를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을 서로 연관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나, 여타의 은유 표현과는 형식상 비유사가 사용되었다는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언급한 은유 표현은 단어나 구 단위의 은유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은유 표현 가운데에는 구문의 구조가 갖는 은유적 특성에서 비롯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특정한 구문 구조를 가진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은유적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구문의 은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가난’을 표현한 다양한 관용구, 속담을 살펴보았을 때, ‘가난’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난이 싸움’,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가난’이라는 단어가 ‘싸움, 원수, 죄’ 등에 사상된 것으로 보아 단어의 은유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목표 영역인 ‘가난’과 그가 사상된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 ‘싸움, 원수, 죄’ 등은 목표 영역인 가난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으로 사상하여 나타낸 표현의 경우, ‘원인이 결과이다’ 구조를 갖는 구문으로서 그 구문 자체가 은유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는 단어의 은유를 1, 구 전체의 은유를 2, 직유를 3, 구문의 은유를 4,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였으나 면밀히 살핀 결과 은유 표현이 아닌 경우를 5로 표시하여 분류한다.¹⁵⁾

14) Dancygier & Sweetser(2014)에서는 특정한 구문이 은유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여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 행위자가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은유적 의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은유 표현이 특정한 구성으로 쓰일 경우 그 구성 자체가 은유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11) 은유 표현의 유형 분류: ‘꽃’의 경우

유형	분류	예시
1	단어의 은유	‘그녀는 우리 회사의 꽃 이다’
2	구의 은유	‘찬란한 백제 문화의 꽃 이 피었다’
3	직유	‘ 꽃 같은 청춘’
4	구문의 은유 ¹⁶⁾	‘가난이 싸움이다’,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 -> 원인이 결과이다
5	은유 아님	‘ 꽃 중의 제일은 목화꽃이다’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은유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와 출처 정보가 있다. 은유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용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표현’으로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표현들은 모두 실제 사용례이므로, 해당 표현의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양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양식

번호	분류어	표현	유형	근원 영역	목표 영역	주제어	출처
1							

위와 같은 구조로 구축된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예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15) ‘5’는 은유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는다. 또한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을 폭넓게 수집, 정리하는 중에 은유가 아닌 표현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류에 포함하여 두었다.
 - 16) 구문의 은유는 특정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유 표현이 갖는 구조적 특성이 보다 중요하다. 1~3, 5 유형의 경우에는 ‘꽃’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은유 표현을 제시하였으나, 4의 경우에는 은유 표현의 구조가 갖는 은유적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로 제시하였다.

(13)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예시

	A	B	E	F	G	H	I
1	분류어	표현	유형	근원 영역	목표 영역	주제어	출처
1131	꽃	꽃 본 나비 (물 본 기러기)	1	꽃	사랑하는 대상	연인	표준 비즈엔터, 2017.12.19
1132	꽃	향년 27세 '꽃이 지다'	2	꽃이 지다	죽다	죽음	http://blog.nave
1133	꽃	나 머리에 꽃 달았다. 정줄 낫 푸른 하늘에 꽃 같은 새를 날 리듯	2	꽃을 달다	미치다	광기	우리교육 중등 용 95년 1월호 미주중앙일보, 2014.04.28.
1134	꽃	그때 백제의 꽃이 피었다.	2	꽃이 피다	전성기를 이루다	황금기	표준 진 미르, 2017.09.01.
1135	꽃	그녀는 우리 회사의 꽃이었다	1	꽃	아름다운 여성	여성	표준
1136	꽃	울림떡의 꽃	1	꽃	중요한 것	사물	국립극장 매거 진 미르, 2017.09.01.
1137	꽃	꽃 본 나비 담 넘어가라	1	꽃	사랑하는 대상	연인	표준
1138	꽃	꽃 본 나비 불을 헤아리라	2	꽃 본 나비 불을 헤아리 라	남녀 간의 정이 깊으면 죽음을 무릅 쓰고서라도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눔.	열정	표준
1139	꽃	꽃은 꽃이라도 호박꽃이라	1	호박꽃	뜻생긴 여성	여성	표준
1140	꽃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2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겉치레보다는 실속이 중요함.	실속	표준

(13)에서 제시한 예시 가운데, 분류어상 ‘꽃’과 관련한 표현이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경우, 한 가지 분류어에 대한 다양한 은유적 사용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꽃’이라는 단어 그 자체뿐 아니라 ‘꽃’이 포함된 복합어나 구가 어떤 은유적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13)에서 제시한 예를 포함하여, ‘꽃’이 사용된 다양한 은유 표현 양상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14)와 같다.

(14) ‘꽃’이 포함된 다양한 은유 표현

분류어	근원 영역	목표 영역
꽃	꽃	핵심
	꽃	미녀
	꽃	사랑
	꽃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
	꽃이 피다	황금기를 맞다
	꽃이 지다	죽다
	꽃이 지다	이별하다
	꽃이 꺾이다	죽다
	머리에 꽃을 달다	미치다
	온실 속의 화초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그저 곱게만 자란 사람

이러한 결과는 ‘꽃’이라는 단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즉 한국인이 ‘꽃’과 관련하여 사유를 조직하고 그를 활용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은 살아 있는 꽃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꽃은 청춘이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인가가 발전하고, 화려하고 좋은 국면을 맞이하는 것과 연관된다. 반면 꽃이 지는 것, 혹은 꺾이는 것은 죽거나 이별을 맞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꽃은 다양한 은유 표현에 사용되는데, 제정신이 아님을 나타내는 ‘머리에 꽃을 달다’, 유약한 사람을 뜻하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같은 동일한 분류어를 갖는 다양한 표현들을 도출하고, 해당 분류어를 활용한 은유적 사유방식이 확장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유 데이터베이스 중 분류어를 중심으로 은유 표현을 정리한 부분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반영된 은유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위의 (14)에서 제시한 예 가운데 ‘꽃이 지다’와 ‘꽃이 꺾이다’는 모두 ‘죽다’라는 목표 영역을 각기 다른 근원 영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꽃이 지다’와 ‘꽃이 꺾이다’의 목표 영역은 동일한 ‘죽음’이라는 주제어에 속하게 된다. 물론 한국어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은유 표현은 그 외에도 다양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죽음은 빛이 꺼지는 것, 잠이 드는 것, 손가락을 놓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들 표현을 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같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목표 영역의 범주 분류는 주제어를 통해 가능하므로, 동일한 ‘죽음’이라는 주제어에 속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그리고 주제어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15)와 같다.

(15) ‘죽음’을 표현한 다양한 은유 표현

주제어	목표 영역 ¹⁷⁾	근원 영역
죽음	죽다	꽃이 지다
	죽다	꽃이 꺾이다
	죽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죽다	빛이 꺼지다
	죽다	잠이 들다
	죽다	순가락을 놓다

(15)에서 제시한 표현 외에도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은유 표현이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주제어 검색을 통해 그와 관련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즉 ‘죽음’을 나타내는 동사구 표현이 다양함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적절하고 새로운 표현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표현의 측면으로, 은유 표현을 분류어를 중심으로 살폈을 때 한국어 은유 표현의 이해 측면과 연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은유 데이터베이스는 은유 표현을 대규모로 집적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에는 은유적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언어 표현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은유 표현을 대규모로 집적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코퍼스, 사전 자료 등을 기초 자료로 삼아 은유

17) 이때 목표 영역을 모두 ‘죽다’로 동일하게 표시하였으나, 이들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꽃이 지다’의 경우 비교적 젊거나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고, ‘꽃이 꺾이다’는 죽음의 양상이 사고, 질병 등일 때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는 동물, 특히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쓰이는 등 각각은 구체적인 의미와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다.

표현을 수집한다. 단순한 자료의 수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은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또한 수집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은유 데이터베이스에는 은유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표현을 광범위하게 수록한다. 전형적인 은유 표현 외에도 속담이나 관용구의 형태로 드러나는 관습적인 은유나, ‘처럼’, ‘같이’와 같은 표현이 개재한 직유 표현,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상징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다른 성격을 지닌 표현들이지만, 내용상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한 은유적 사고를 거친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은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집된 은유 표현들은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으로 구분하고, 주제어와 분류어, 그리고 출처를 표시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여 은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한 은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은유 표현으로 드러난 한국인의 사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근원 영역을 포괄하는 분류어와, 목표 영역을 연관되는 주제어를 활용하여 각각을 도출하게 되면 우리 언중이 생산하여 쓰고 있는 한국어 은유 표현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혜(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김옥동(1999), 은유와 환유, 민음사.
 김종도(2004), 은유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김진혜(2014), “개념적 은유의 보편성과 특수성: ‘마음’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의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6, 331-349.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한국어 연어 사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혜연(2010),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얼굴’의 은유적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49, 23-45.
 남민우(2011),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36, 257-285.
 도원영(2008),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 33-57.
 박규병·E. Michael(2013), 한국어 관용어 사전, 서울: 문예림.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준·최경봉 편저(1996), *관용어사전*, 서울: 태학사.
- 박현수(2008), “수사학의 3분법적 범주: 은유, 환유,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95-323.
- 방종현·김사엽(1949), *속담대사전*. 서울: 교문사.
- 심지연(2015), “전쟁 도식 은유의 역사적 연구”, *한국학연구* 52, 101-136.
- 심지연(2016),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51, 111-136.
- 심지연(2017), “운동경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7, 7-30.
- 이숙의(2013), *한국어 동사 온톨로지 구축 연구: 동사 상위 개념 체계 분류와 영역 온톨로지 구축의 실제*, 서울: 역락.
- 임지룡 외(2015),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태학사.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87-131.
- 임지룡(1995), “은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한국학논집* 22, 157-176.
- 임지룡(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 28, 117-150.
-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29-60.
- 임혜원(2006),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 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미학* 19, 125-155.
- 전혜영(2014), “한국어 표현에 나타나는 여행 은유”, *이화어문논집* 33, 75-103.
- 전혜영(2016),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30, 133-161.
- 최경봉(1997), “은유 표현에서의 단어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 의미학* 1, 171-190.
- 최경봉(2000), “은유 표현에서 단어의 선택과 해석 원리”, *한국어 의미학* 7, 215-241.
- 최경봉(2002), “은유 표현에서 어휘체계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학* 15, 285-306.
- 최경봉(2014),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 서울: 일조각.
- Charteris-Black & Jonathan(2004), *Corpus Approaches to Critical Metaphor Analysis*. Palgrave Macmillan.
- Dancygier, Barbara, & Eve Sweetser(2014), *Figurative Language*.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지룡 역(2015), *비유 언어*, 서울: 한국문화사.)
- Deignan & Alice(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Advances in Consciousness Research)*. John Benjamins Pub Co.
- Lakoff, George, &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공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Knowles, M. & Moon, R.(2006), *Introducing Metaphor*. Routledge. (김주식·김동환 역(2008),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 Kövecses, Z.(2002), *Metaphor*. Oxford University Press. (이정화 외 역(2003), *은유*,

한국문화사.)

Quinn, E.(2006), *A Dictionary of Literary and Thematic Terms* (2nd ed.), New York: Facts On File.

Renton, N. E.(1990), *Metaphorically Speaking*, New York: Warner Books.

Sommer, E. & D. Weiss(1996), *Metaphors Dictionary*, Canton: Visible Ink Press.

Stefanowitsch, Anatol, & Gries Stefan Th.(2006), *Corpus-based Approaches to Metaphor And Metonymy*,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Vol. 171.

국립국어원(2018),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1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도원영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02841

전화 번호: 02-3290-1618

전자 우편: dony68@korea.ac.kr

김혜령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25길 36

53동 103호

01433

전화 번호: 02-991-6267

전자 우편: snowysicilly@hanmail.net

최경봉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4538

전화 번호: 063-850-6149

전자 우편: kbchoi@wku.ac.kr

최호철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02841

전화 번호: 02-3290-1972

전자 우편: hocheol@korea.ac.kr

원고 접수일: 2018. 07. 30.

원고 수정일: 2018. 09. 13.

게재 확정일: 2018. 09. 17.